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이용하여 전환점을 만들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15학번 정○○

○ 에세이 작성 동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는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모두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강의를 듣고 저를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비대면 수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강의 방식에 대한 학습법에 대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강의에 대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집에 있으니 수업에 집중이 안된다.’, 녹화된 강의를 듣다보니 배속을 켜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나태함을 겪었으나 저만의 학습법과 단축된 통학시간, 녹화 강의를 통한 반복 학습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의 학습법에 방황하는 학우들에게 학습법을 공유하여 학우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

1. ‘모든 수업의 장소는 학교. 강의는 대면’ 이라는 기본틀을 따라가자!

장소가 편안한 집이기 때문에 집에서 입는 잠옷같은 편안한 복장으로 수업에 임하거나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수업을 듣거나 수업시간에 임박하여 기상한 뒤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부터 나태함을 일으킵니다. 잠옷과 침대, 소파에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은 졸음을 유발하기 쉬우며 그 졸음 자체가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어 학습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거의 임박하여 기상하는 것은 뇌가 활성화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초반 강의의 내용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며, 초반 강의를 놓치게 되면 그 뒤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듣는 실시간 대면수업처럼 수업시간 전에 미리 씻어 단정한 모습으로 수업준비를 하고 집이라고 해서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갈 때처럼 단정한 복장의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태해지는 것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녹화강의를 잘 활용하자! 녹화된 시간보다 수업을 일찍 끝내지 말자!

많은 학생들이 녹화된 강의를 들을 때 과도한 배속(빨리감기)이나 특정 구간을 skip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kip을 하려는 구간이 보통 교수님께서 수업내용을 돕기 위한 수업 외의 이

야기를 하는 경우나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skip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 우리 뇌를 충분히 휴식시킬 수 있어 다음 내용을 교수님께서 진행하실 때 우리가 더 쉽게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Skip을 하게 된다면 뇌를 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또한 수업내용과 관련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교수님께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나 채점 기준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skip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배속을 사용하여 수업이 지루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빠른 배속은 강의를 듣는다는 느낌보다는 강의 시간을 때운다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말씀이 느리신 교수님 기준으로 1.2배속이 가장 적절한 배속이었으며 수업의 지루함을 덜고 오히려 긴장감을 올려 학습효과에 좋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녹화강의를 다 듣고 빠른 배속(1.5배속이상)으로 강의를 다시 보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는 동시에 필기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충분히 학습효과가 올라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화강의 또한 현장강의처럼 정해진 시간표대로 강의를 들으며 ‘녹화강의니까 나중에 듣자.’ 라는 나태해짐을 미연에 방지하여 강의를 나중에 몰아들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마음이 급해져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을 잘 이용하자!

우리는 비대면 강의를 통해 통학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강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통학시간 2시간 반, 일평균 공강시간이 1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3시간 반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들었던 강의들에 대해 충분한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강시간에는 **그전에 들었던 수업을 간단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남은 시간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킨 뒤 휴식을 통해 뇌를 충분히 쉬게 하여 다음 수업 시간의 이해도를 높힐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다음 수업을 듣고 수업을 마친 뒤에 아낄 수 있었던 통학시간들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낀 통학시간에 맞추어 타이머를 켜놓고 오늘 배웠던 수업들에 대한 충분한 복습을 합니다.**

4. 피라미드 정리방법과 자체 테스트 제작

피라미드라고 하면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필기를 하고 정리를 할 때 내용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ppt나 필기한 내용을 토대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형광색 펜으로, 그 내용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파란색 펜으로 밑줄을 긋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그어 가독성을 높입니다.** 2차적으로 형광펜, 파란펜, 빨간펜을 사용한 것만 따로 A4용지에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3차적으로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A4용지에 축약시켰던 내용 중에서 공부가 더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하여 A4용지에 붙이게 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1차-3차로 갈수록 내용이 적어지며 또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부족한 지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 좋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비대면강의가 가지는 장점과 저만의 학습방법을 이용하여 2020-1학기와 여름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24학점 학점평균 4.0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2019-1학기 성적인 2.77이라는 성적에 비해 1.23이 오른 성적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들로 공부를 덜하게 되는 후배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 되며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후배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강의가 가지는 장점이 많지만 비대면 강의가 가지는 장점도 충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통학시간이 단축되므로 해당 시간만큼 휴식을 더 취하거나 숙면을 더 취할 수 있고 녹화된 강의를 통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점에 주목하여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제가 고안한 학습법을 통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아가서 공부에 대해 탄력을 받아가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늘었습니다.

○ 추천 이유 및 소감 등

2020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한국항공대학교를 졸업하여 떠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며 후배님들에게 좋은 계기로 도와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 기회가 닿지 못하였지만 학습법 공모전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제 학습법에 대해 후배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방황하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나태해지기 시작하여 수업을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리고 제 학습법을 통해 좋은 성적을 이루어 저처럼 긍정적인 결과와 변화된 태도를 가지고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